

# “코로나로 힘든 청년들, 심리상담해요”...오늘부터 신청

###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19~34세 신청 가능 월 최대 7만원...본인부담금은 10%로 이용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코로나19, 취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참여는

불가능하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해 3개월간 주 1회, 총 10회의 전문 상담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회당 50분, 사전·사후 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는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관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

하다. 서비스 유형은 두 가지이며, A유형은 단가가 월 24만원으로 회당 6만원이다.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다. B유형은 회당 7만원, 월 28만원의 단가가 책정됐다. 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기준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이 있는 자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단가의 10%이며 자립

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 방법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유나기자**

## ‘6월 초여름 버금’ 광주·전남 연일 30도 육박 무더위

**곡성 석곡 29.7도까지 기록...광주 월 최고기온 5위**

광주·전남에 6월 초여름 더위를 방불케하는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1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최고기온은 곡성 석곡 29.7도, 순천 황전 29.4도, 광주 28.9도, 나주 27.3도, 여수 산단 26.9도, 광양 25.9도, 영광 25.8도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광주와 담양·영광·화순 등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6~28도 분포를 보였다. 특히 광주는 이날 최고기온 28.9도를 기록, 역대 4월에 관측된 일 최고기온으로는 5번째로 높았다. 앞서 광주의 역대 4월 일 최고기온은 2017년 4월 16일 관측된 30.4도다. 이는 평년(1991~2020) 기준 4월 최고기온 19.9도, 평균 기온 13.4도를 모두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기상청은 이날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기온 25~28도 분포를 보여 6월 상순 평균기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일본 동쪽 해상의 고기압 영향이 커졌고,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일사량이 많아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서선욱기자**

## 고향 후배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집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술자리 직후 시비가 붙은 고향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0시 43분께 광주 서구 한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술자리를 함께한 B(44)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향 후배인 B씨가 너와 맞짱뜨

면 내가 이긴다며 욕설을 하자 핫김에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에게 맞아 바닥에 넘어진 B씨를 밟았고, B씨는 폭행 1시간 10여 분만에 복부 손상(장간막 파열)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B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동취재본부**



조계종 사노위 스님 등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오체투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스님 등이 12일 오전 서울 중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출발해 중국 주한러시아대사관으로 향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민간인 학살 규탄, 평화 기원’ 삼부일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 ‘가짜 경유’ 판매 15억 챙긴 일당 50명 검거

**선박용 경유와 정상 경유 2대 1로 섞어 판매**

선박용 경유로 만든 가짜 석유를 시중에 판매해 15억 상당의 불법 이익을 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50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급과 알선, 유통, 탈색업자 4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년 8개월에 걸쳐 고유황 성분의 선박용 경유와 정상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만든 뒤 이를 시중에 판매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가짜 석유는 선박용 경유를 리터당 400원, 약 150만리터를 불법 매입한 후 이를 탈색해 정상 경유와 1대 2 비율로 섞어 총 500만리터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범인 전국 주유소 21개소와 공모해 리터당 1400원에 가짜 석유를 판매하

는 등 이를 통해 15억 상당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경찰은 압수한 불법 석유제품 13만리터 상당은 폐기했다. 그러나 나머지 487만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로 대구와 경북, 충남·충북·전북·경기 지역 주유소에서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공급과 알선, 유통, 판매 등 점조직으로 구성해 단계마다 상호 신분을 철저히 감추며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은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며 단속을 피했다. 한편, 선박용 경유는 정상 경유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